에프엔씨엔터 (173940)

더욱 커지는 글로벌 팬덤, 달라지는 성장의 체급.

ARIS
더 많은 보고서는 텔레그램 채널로
@ARIS1031

Info

기업탐방 일자	2026.07.15
발간 일자	2026.08.25
투자 의견	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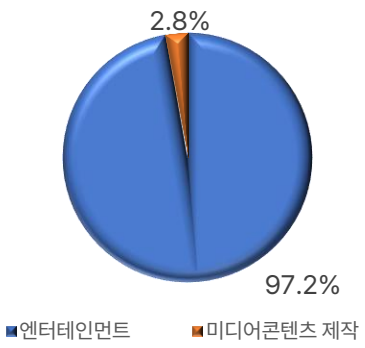
Company Data

시가 총액	346억원
상장 주식수	15,392,808주
액면가	500원
외국인 소진율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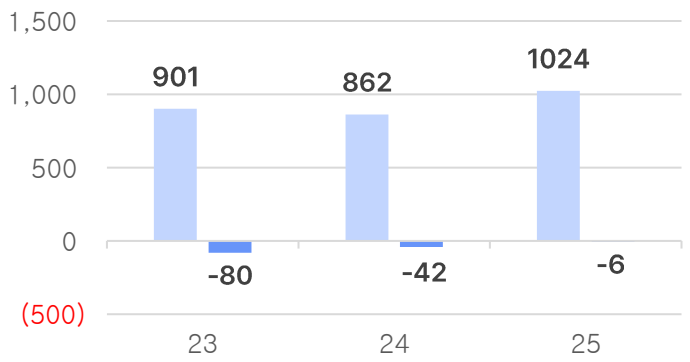
Report Summary

- 2006년 설립. 2014년 코스닥 상장
- 상반기 매출 30% 성장, 본업 성장에 청신호
- 탄탄한 기존 IP 위에, 차세대 IP가 성장을 더하다.
- 하반기 실적 모멘텀들의 대거 라인업 등장.
- 2026년 매출액 1,215억원,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망.

매출 비중(연결)



최근 3개년 매출 추이(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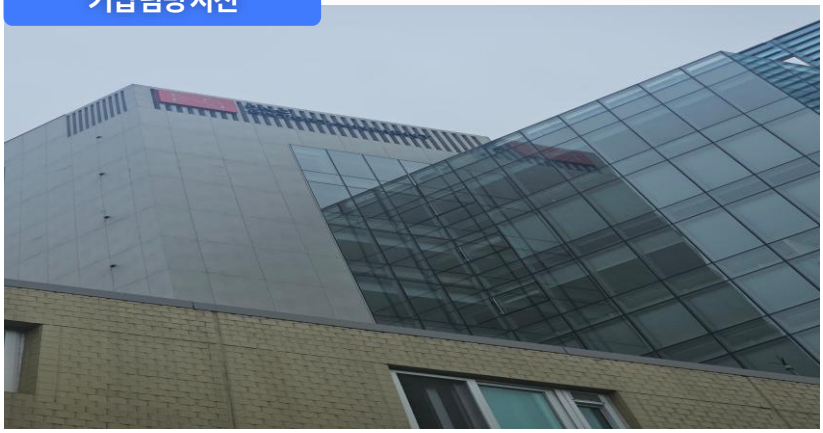


자료 : 에프엔씨엔터 **단위** : 억원

Analyst

이재모
charisma38@naver.com
정민희
b.2point0@naver.com

기업 탐방 사진



ARIS
INDEPENDENT
Analysis • Research
Investment • Stock

에프엔씨엔터 (173940)

기업 개요

에프엔씨엔터는 2006년 12월 14일에 설립되어 2012년 1월 4일 피쉬엔케익뮤직에서 FNC엔터테인먼트로 상호변경 후 2014년 12월 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주요사업은 음반기획 제작,유통업 및 매니지먼트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있다.매출 비중은 26년 연결기준 음악사업 75.44%,매니지먼트사업 12.51%,기타사업 12.0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음반 및 공연기획을 영위하는 FNC ENTERTAINTMENT JAPAN Inc.와 콘텐츠 기획,제작 및 투자등 영위하는㈜에프엔씨스토리,MARCH Inc.그리고 FNC USA LLC.가 있다.최대주주는 한성호 22.34%,SUNING UNIVERSAL MEDIA.LTD 20.53% 보유중이다.

사업의 개요

회사는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음악과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구성되며, 아티스트의 음반·음원·공연·MD 및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음악 사업은 음반·음원 제작 및 유통, 공연, MD 사업과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비롯해 방송·광고·영화 등 영상물에 삽입되는 음악 콘텐츠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매니지먼트 사업은 소속 연예인의 방송·영화·광고 출연 등 연예 활동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배우뿐 아니라 가수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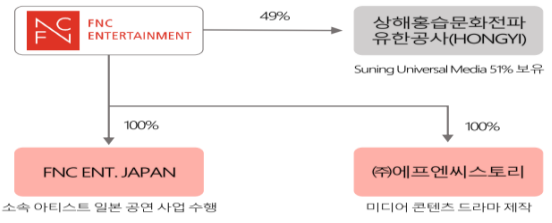
미디어콘텐츠 제작 사업은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를 제작해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OTT 플랫폼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콘텐츠 유통 채널이 기존 방송 중심에서 OTT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콘텐츠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 에프엔씨엔터 기업 개요

회사개요

회 사 명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173940)
설 립 일	2006. 12. 14
상 장 일	2014. 12. 04
대 표 이 사	한성호, 김유식 공동대표
임 직 원 수	203명 (2026. 03 기준)
자 본 금	77억원 (2026. 03 기준)
소 재 지	[청담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85길 46 [성수사옥]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78

지배구조



주주구성



자료 : 에프엔씨엔터

에프엔씨엔터 (173940)

상반기 매출 30% 성장, 본업 성장에 청신호

FNC엔터테인먼트의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4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상반기 외형 성장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 일정 집중과 글로벌 투어 확대에 따른 음악사업 성장세가 견인했다.

특히 P1Harmony의 활발한 국내외 활동과 FT아일랜드의 공연 확대, CNBLUE의 월드투어 진행 등이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 확대가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음악사업이 상반기 외형 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사업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2022년 이후 비엔터 및 적자 사업을 정리하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왔다. 자회사 축소와 비핵심 사업 EXIT를 통해 CORE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인베스트먼트 매각 60억원과 비핵심 자산 매각 50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재원은 음악·배우 매니지먼트·드라마 제작 등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재배분했다.이러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매출액은 2025년 1,024억원을 기록했다.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 일정과 글로벌 투어 확대가 맞물리며 전년 동기 대비 약 30%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번 상반기 실적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핵심 사업으로의 자원 재배분이 진행되는 가운데, 음악사업을 중심으로 본업의 외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P1Harmony·FT아일랜드·CNBLUE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국내외 활동 확대가 상반기 실적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면서 음악·매니지먼트 중심의 사업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 에프엔씨엔터 아티스트

가수


FT아일랜드


씨엔블루


SF9


엔플라잉


피원하모니


앰퍼샌드원


AxMxP


최립우

배우


정해인


김로운


성혁


김서하


박광재


문성현


박지원


강설


김세연


최유주


김보라


박채린

자료 : 에프엔씨엔터

에프엔씨엔터 (173940)

탄탄한 기존 IP 위에, 차세대 IP가 성장을 더하다.

FNC엔터테인먼트의 하반기는 주요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와 글로벌 투어가 대거 집중된다. P1Harmony를 필두로 N.Flying의 활동 확대와 기존 밴드 IP의 투어, 신인 그룹의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며 아티스트 라인업 전반의 활동이 확대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P1Harmony의 가파른 성장세다. 미니 9집 'UNIQUE'는 초동 50만장으로 첫 하프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 빌보드 200 4위에 진입했다. 위버스 팬덤도 2024년 165만명 → 2026년 4월 240만명, 공연 규모는 2022년 2만석 → 2025년 약 13만석으로 확대됐다. 하반기에는 새 앨범과 함께 11월 데뷔 첫 일본 도쿄 아레나 공연을 진행하고, 이후 타이베이·마카오·방콕 및 KCON LA 2026 등으로 글로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N.Flying의 성장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승협의 '선재 업고 튀어' 출연 이후 팬덤이 확대되면서 음원과 앨범 판매가 증가했고, 공연 지역도 국내·일본·아시아에서 미주·유럽까지 확대되고 있다. 행사 횟수 역시 2023년 9회 → 2024년 21회 → 2025~2026년 40회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데뷔 첫 전국투어와 아시아 투어, 9월 신규 앨범 발매가 예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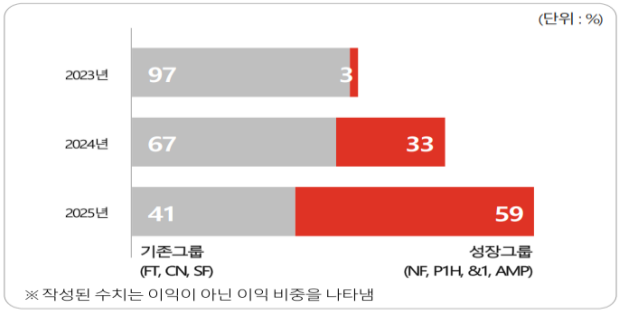
기존 및 차세대 IP의 활동도 동시에 확대된다. FT아일랜드는 공연 일정을 확대하고 CNBLUE는 월드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AMPERS&ONE은 미주·아시아에 이어 첫 유럽 투어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소속 아티스트가 총출동하는 'FNC KINGDOM'도 예정돼 있어 하반기 공연·앨범 활동이 집중될 전망이다.

FNC는 비핵심 사업 정리 이후 음악·배우 매니지먼트·드라마 제작 등 핵심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P1Harmony의 글로벌 성장과 N.Flying의 팬덤 확대, 기존 밴드 IP의 공연 활동, 신인 그룹의 해외 진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아티스트 IP 중심의 세대교체와 성장 기반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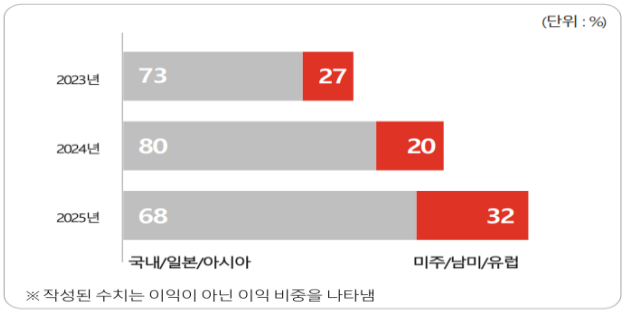
하반기에는 주요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와 글로벌 공연 일정이 집중되면서 음악사업의 실적 기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P1Harmony와 N.Flying의 성장에 기존 아티스트와 신인 라인업의 활동 확대가 더해지며 하반기 실적 개선을 이끌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성장 IP가 이끄는 이익 구조 변화.

그룹별 이익 비중 비교



국가별 이익 비중 비교



자료 : 에프엔씨엔터

실적 전망

① 26년 매출액 1,215억원, 영업이익 27억원 흑자전환 예상

자원 재배분을 통해 음악·매니지먼트·드라마 제작 등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 P1Harmony·N.Flying 등 주요 아티스트 활동 확대와 글로벌 투어 증가로 음악사업 중심의 외형 성장 지속 예상.

② 26년 2분기 매출액 493억원 기록

상반기 외형 성장은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 일정 집중과 글로벌 투어 확대에 따른 음악사업 서장세와 국내외 활발한 활동과 월드투어 진행 등이 음악사업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에 기여함.

최근 3개년 매출 추이(연결 기준)

	2024	2025	2026(E)
매출액	862	1024	1215
영업이익	-42	-6	27
당기순이익	-67	-118	-37

자료 : 독립리서치 ARIS

단위 : 억원

체크포인트 및 리스크요인

➢ 핵심 IP의 수익 기여도 확대 여부

P1Harmony와 N.Flying의 팬덤 및 공연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활동 증가가 실제 매출 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주요 체크포인트다. 특히 하반기 앨범과 글로벌 공연 일정이 집중돼 있어 성장 IP의 실적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용일 뿐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며, 투자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당사는 해당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작성자는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을 발간 전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간 후에 매수·매도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아리스(ARIS) 에 있습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및 복제, 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